

기록문화 확산 중심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기록물 주제 전시·체험·교육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단순한 보존 공간을 넘어 시민과 함께 하는 기록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시민이 기증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조성됐다. 개관 이후 전시뿐만 아니라 기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록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시민도슨트 양성과정'을 비롯해 △가정의 달 기록관 방문주간 △기록과 함께하는 음악회 △기록관 십자말풀이 등은 기록의 소중함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시민의 기증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운영체제로 전국 기관·단체의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방문객이 1만 명을 돌파했다.

기록관은 방문객들로부터 '선도적인 시민기록과 지역의 근현대사를 배워려면 익산에 와야 한다', '기록을 기증과 보존에 대한 익산시의 정책이 모범적이다'라는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방문객 1만 명 돌파를 기념하며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람객 선착순 100팀은 기념 엽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단순한 보존 공간을 넘어 시민과 함께 하는 기록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와 볼펜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archives.iksan.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859-4620~4622)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기록관의 성장 동력이자 익산의 자부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익산을 생명력 있는 기록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동공원에 있는 수립재에서는 '제5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가을 정취 속에서 한옥과 어우러진 전시로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환태청소년문학상 수상작 발표

무주군, 조정연 학생 산문 '빛이 머무는 자리' 대상 선정



조정연 학생

무주군은 제7회 김환태청소년문학상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전북 완주군 한별고등학교 2학년 조정연 학생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정연 학생의 산문 작품 '빛이 머무는 자리'는 주제의 적합성, 표현의 참신성, 작품의 완성도 등 모든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조정연 학생은 "김환태 평론가의 문학적 정신을 계승하는 공모에서 대상을 받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업에도, 문학에도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금상(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은 충남여자

중학교 1학년 김다아 학생('반딧불은 스스로를 태워 문장을 만든다' <산문>), 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은 전북 무주안성고등학교 1학년 강민석 학생('무주의 숨' <운문>), 동상(무주군수상)은 전북 무주고등학교 1학년 이연우 학생('불꽃살이 일렁이는 정원' <산문>)이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가작에는 대구 월배중학교 1학년 김소율 학생('뒤돌아' <운문>), 전북 무주고등학교 2학년 이슬 학생('나를 품어준 계곡과 대자연에 대한 감사 편지' <산문>), 대구 도원중학교 1학년 박소윤 학생('이상한 무주의 반딧불이' <산문>), 전북 군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지연 학생('無개' <운문>), 제주 브람섬힐아시아 8 김세형 학생('부지런함의 온도-김환태의 수필 '개미'를 읽고' <산문>)이 선정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금과 강도군 전국 판소리·고법 경연대회 성료

사)강도군동원판소리보존회(대표 이난초) 주관으로 열린 '제33회 금과 강도군 전국 판소리·고법 경연대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판소리의 뿌리인 동원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뜻깊은 무대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판소리 및 고법 인재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는 일반부, 신인부(단체 및 개인),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부문의 판소리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부문의 고법 경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소리와 장단으로 감동받은 실력을 자랑했으며, 판소리 일반부 대상 수상자 김혜를 무대는 참가자와 관객 모두에게 열정과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8일 오후 4시에는 김건희 명창(국가무



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의 '흥보가' 완창 발표회가 열려 깊이 있는 소리와 완성도 높은 무대로 큰 박수를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시상식 개최

전북대, 대학·고등 부문 수상자 선정

'제25회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7일 전북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 대학 부문에서는 「선」을 쓴 도하은(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3년) 학생이, 고등 부문에서는 「스냅 메시지」를 선보인 송유빈(대덕여자고등학교 2년)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대학 부문에서는 「무이가 말했다」를 쓴 이예원(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2년) 학생이, 고등 부문에서는 「시럽에 잠긴 체리」를 쓴 박빛나(구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 부문 대학부 당선작 「선」은 음운적, 조형적 특성을 인간 내면을 접목한 지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시 부문 고등부 수상작 「스냅 메시지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역설적으로 그런 삶이 얼마나 장엄한 가능성의 세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대입제도를 '사과 쪼개기'로 은유하면서 학생들의 내면을 정량화할 수 있는지 풍자적으



'제25회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7일 전북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로 다루고 있는 소설 부문 대학부 당선작 「무이가 말했다」는 구성이 탄탄하고 주제를 끌고 가는 힘이 강해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사람들이 녹아 물웅덩이로 변하는 기현상을 통해 '현대인의 잃어버린 자아 찾기'를 표현한 고등부 당선작 「시럽에 잠긴 체리」는 인간 존재와 사회를 탐구하는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총상금이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확대된 이번 문학상에는 235명이 573편을 응모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가람이

병기청년시문학상 심사는 복효근·오창렬·문신·이병초 위원,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심사는 최기우·김소윤·장마리·황보운 위원이었다.

양오봉 총장은 "이 문학상은 굴곡진 신예를 양성해 온 한국 문학의 등용문"이라며 "전북대학교의 문화적 자산인 '가람이병기' 시인과 '최명희' 소설가의 이름으로 발굴·육성되는 문재들이 세계적인 문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출판진흥원·문체부,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 개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2025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한국 그림책 9편을 선정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7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총 456건의 작품을 접수했으며, 문체부 장관상과 출판진흥원장상을 포함한 총 9편의 수상작(11명 작가)을 발표했다. 심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았다.

대상(픽션)에는 조오 작가의 '점과 선과 새'가 선정됐다. 은유와 아름다운 삽화가 조화를

이루어 인간 문명과 자연 파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전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논픽션)은 김유대 작가의 '이런, 텃쟁이들!'이 차지했으며, 과학 정보서의 새 지평을 연 강렬한 몰입감과 독창성이 돋보였다.

특별상은 '꽃에 미친 김 군'(김동성), '코끼리를 만지면'(엄정순), '건축물의 기억'(최경식·오소리·홍지혜), '경복궁 친구들'(조수진), '정동 투구를 쓴 소년'(소윤경), '환호'(공은혜) 등 6편에 돌아갔다. 신인상은 참신한 주제와 몰입감을 인정받은 민병권 작가의 '들어와'가 받았다. /오상근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고창부안축협 한우명품관

축산인의 실익도모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고창부안축협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한우명품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1길 13

예약문의 : 063-563-6001

부안한우명품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85-1

예약문의 : 063-581-2349